

베트남 통신 사업자, OTT 플랫폼에 망사용료 요구

출처

VN Express, "Telecom operators want OTT players to pay for use of networks", 2023.04.09.

- 베트남 통신 사업자들이 OTT 서비스 제공에 따른 트래픽 증가로 인프라 유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OTT 사업자에 망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촉구
 - 베트남 통신 사업자들은 4월 6일 정보통신부(MIC)와의 간담회를 통해 OTT 사업자가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, 통신망 확충 및 유지에 투자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
- Viettel Telecom의 CEO인 Cao Anh Son은 베트남 내 OTT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을 언급하며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 부담을 강조
 - Son CEO는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통화량 및 SMS 사용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, 베트남 내 글로벌 OTT 플랫폼은 급속 성장 중이며 일부 사업자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
 - 또한, 통신사는 OTT 사업자에게 인프라를 제공하지만, OTT 사업자는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크다고 설명
 - Viettel Tele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Facebook, Google 및 Netflix가 베트남의 해외 트래픽 발생 비율의 80%를 차지
- MobiFone의 부사장 Bui Son Nam은 MIC가 작성중인 통신법 개정안이 통신 사업자와 OTT 사업자 간 인프라 개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기를 희망
 - Nam 부사장은 비디오 해상도를 HD에서 4K로 높이는 등 사용자 행동 및 콘텐츠 전송에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네트워크 전송 시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
- 한편, 유럽 통신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미국 거대 IT 기업들에 망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이 거부된 바 있음
 - IT 기업들은 소비자로서 데이터 사용료를 이미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
 - 만약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, 인터넷과 OTT 공간에서의 혁신과 경쟁이 위축되며 결국 최종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

베트남 정보통신부, OTT 메시징 앱 규제를 위한 통신법 개정안 초안 발표

출처

Hanoi Times, "MIC to regulate OTT communication in Vietnam", 2023.03.24.

베트남 정보통신부가 Zalo, Viber 및 Telegram 등 인기 OTT 메시징 앱을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법에 따라 규제하도록 하는 통신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구

- 정보통신부는 OTT 메시징 앱에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의 부재를 지적하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
 - 정보통신부는 Zalo, Viber, Telegram 및 WhatsApp과 같은 OTT 메시징 서비스가 휴대전화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 등에 취약하다고 강조
 - 유럽, 중국, 대한민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언급
- 정보통신부는 동 초안에서 국내외 OTT 메시징 기업들에 공정한 경쟁을 요구
 - 베트남 국내 OTT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고, 해외 공급자의 경우에는 인가받은 베트남 국내 공급자와 상업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
 - 또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받지 않는 OTT 메시징 서비스도 최소한 정보통신부에 등록을 마칠 것을 요구
- 한편, 베트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글로벌 OTT 메시징 서비스는 베트남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인가받은 국내 공급자와 상업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도록 규정
- 이번 통신법 개정안 초안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OTT 메시징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보안을 준수하는 방법이라고 언급